

주간기도정보

2026. 5. 1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K-이단’ 해외 확산 심각... 신천지·하나님의교회 피해 증언 잇따라

강제 결혼·무급 노동 등 인권 침해 사례 속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바이블백신센터는 6일 서울 동작구 KWMA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등 이른바 ‘K-이단’의 해외 확산 실태와 포교 전략을 공개했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높은 해외 거주민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을 경계 없이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내외 교회에 동시에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K-이단’의 확산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하나님의교회 최고위 지도자 출신인 미치 C 목사는 “하나님의교회는 약 40년 만에 400만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 퍼져있고, 일부 지역에는 10-30개 거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존(가명) 씨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활동하던 중,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강요 받았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교회 활동에 동원되는 생활이 반복됐다. 주 7일 이어진 무급 노동과 통제 속에 탈퇴를 결심하자 협박과 강제 이혼이 뒤따랐다.

신천지 역시 해외에서 조직적인 포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하는 ‘모락 포교’를 통해 장기간 관계를 형성한 뒤 단체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캐나다와 남미 지역에서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브라질·칠레·콜롬비아 등지로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의 신천지 연구가 사이먼 가레트 목사는 “SNS와 각종 모임을 통해 접근한 뒤 1-2년에 걸쳐 신뢰를 쌓고 조직으로 유입시키는 장기 전략이 특징”이라며 “정신건강 세미나,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접점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K-이단’의 확산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기만과 심리적 통제를 통해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권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 발원 이단들이 북미·유럽·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천 명의 피해가 확인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해외 확산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와 언론을 향해서도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갈라디아서 2:4-5)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베드로후서 1:10-11)

하나님,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해외에서도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 앞에 탄식과 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짓 이단들의 실체를 낱알이 드러내어 주십시오. 아울러 한국교회의 중심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시고, 힘써 복음으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거짓 형제와 원수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2. 북한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북한을 바꾸는 힘은 정보”... 탈북민 11인의 생생한 증언

북한자유주간 마지막 행사서 인권 참상 폭로... 주민들에게 희망 메시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마지막 공식 행사가 지난 1일 레이번 하원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11명의 탈북민이 연단에 올라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했으며, 이후 미국 의소리(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탈북민 김지영 씨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정보”라며 외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북한방송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가 사람을 바꾸고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2년 이후 탈북한 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6%가 북한에서 주 1회 이상 외부 라디오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 정보”라며, “이미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북한을 “거대한 교도소”에 비유했다. 그는 “일반 교도소와 다른 점은, 관리 방식에 의문을 품거나 신앙을 가지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현실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2018년 탈북한 이재희 씨는 고난의 행군 시기 가족을 잃고 청년돌격대에서 8년간 강제노동을 했던 경험을 증언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배부르게 잠든 적이 없었으며, 이후 인신매매 피해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노동 중 체포돼 2년 2개월간 억류됐던 최춘혁 씨는 강제복송 위기 속에서 국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행사 후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순실 씨는 세 살배기 딸과 함께 탈북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생이별한 사연을 전했다. 그는 딸에게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엄마는 너를 향한 그리움의 끈을 놓지 않고 살고 있으니, 끝까지 살아서 꼭 만나자”고 전했다.

김가영 씨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 함께 통일
일의 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춘혁 씨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 있을 동포 여러분, 자유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광민 씨는 “바깥세상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며 “절대
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견뎌달라”고 했다(출처: VOA 종합).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다니엘 11:3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5:12-13)**

하나님, 탈북민들의 북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 거대한 교도소 같은 그 땅의 참상을 듣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
하여 기도합니다.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신앙을 가지려고만 해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인 북한 영혼들의 심
령 안에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
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려지게 하사 하나님을 앎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용맹한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한국과
열방의 한 몸 된 교회가 북한의 교회와 주민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
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북한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땅 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않은 다음세대... 아이들을 위한 나라 어디에
한국 아동 ‘삶의 만족’ 꼴찌... 물질적 풍요 속 ‘마음의 빈곤’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다.” 1957년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선언했다. 그러나 어린이날을 맞아
돌아본 현실은 그 이상과 여전히 큰 괴리를 보인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산하 이노철티연구소가 발표한 ‘예측 불가능한 세계,
아동의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종합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중 27위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21위)보다
하락한 수치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는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내 지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방정환재단의 ‘2026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17위에 그쳤다. 세부 지표 중 ‘삶의 만족’은 꼴찌였으며, 주관적 건강과 외로움은 각각
뒤에서 2, 3번째를 기록했다. 또한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는 응답이 25%로 1위를 차지해 ‘가족’(22%)을 처음
앞질렀고, 그 연령도 초등 6학년까지 낮아졌다.

한편 국가통계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물질적 환경은 개선된 반면, 정서적 만족도와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3년 37.3%에서 2024년 42.3%로 높아졌고,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49.9%)은 남학생(35.2%)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또한 범불안장애 경험률도 증가했으며
또래 폭력과 스마트폰 과의존도 늘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이 지목된다. 2024년 사교육 참여율은 8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 과도한 학습 부담은 수면 부족과 정서 불안으로 이어져,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한 19세 미만 환자는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지윤 큰사랑심리상담센터 대표원장은 “초등
저학년부터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압박 속에 아이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아이들을 평가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며 수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각 교단 교육국들도 생애주기에 맞춰 아동과 부모를 세우는 교육을 개발 중이다.

정 원장은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경험이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 교회 주일학교와 공동체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뉴시스,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명기 33:29)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21)

하나님,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 아픈 현실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죄 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고 깊은 자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사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아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 그들 또한 구원을 얻은 참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모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들을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가치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예수교회로 자라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